

# 월간 실적보고

## 2017.03

### Summary of 2017 Mar

1.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**47.1%** 성장  
-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(입장권, Pass 등)을 합산한 수치
2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**33.8% YoY** 증가  
- 패키지 **32.2%** / 티켓 **36.5% YOY** 증가 (13.1만명 / 8.3만명)
3. 유럽 **97.2%** 동남아 **63%** 미주 **35%** 남태평양 **32%** 중국 **11%**  
- 유럽 2달 연속 YoY 90% 이상 성장 (2월 94.4%, 3월 97.3%)

### 3월 Review :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성장률 47.1%

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성장 33.8%, 송객인원 21.4만명. 역대 3월중 최초로 20만명 이상 송객  
 패키지 인원 성장률 32.2%, 13.1만명. 역대 처음으로 3월 월간 송출객 13만명 이상 달성  
 티켓 인원 성장률 36.5%, 8.3만명. 최근 7개월 중 가장 높은 월간 인원 성장률

### 3월 실적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2017	131,280	83,250	214,530
2016	99,297	60,982	160,279
YOY	32.2%	36.5%	33.8%

패키지 YoY : 17년 1월 3.4% → 17년 2월 22.3% → 17년 3월 32.3%

티켓 YoY : 17년 1월 23% → 17년 2월 33.6% → 17년 3월 36.5%

총송객 YoY : 17년 1월 10.9% → 17년 2월 26.7% → 17년 3월 33.8%

### 지역별 성장 (YoY)

유럽 97.2% 동남아 63.3% 미주 34.5% 남태평양 31.7% 중국 10.6%

유럽 +97.2%, 4달 연속 성장률 상승 (16년 12월 33.6% → 17년 1월 39.1% → 2월 94.4% → 3월 97.2%)

파리와 터키 테러로 인해 16년 연간 약 20% 역성장 했던 유럽은 17년 들어 회복 이상의 성장 지속.

동남아 +63.3%, 중국 +10.6%, 중국과의 THAD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두 자릿수 성장, 다소 둔화된 중국의 성장성을 근거리 대체지역인 동남아가 흡수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월간 YoY 성장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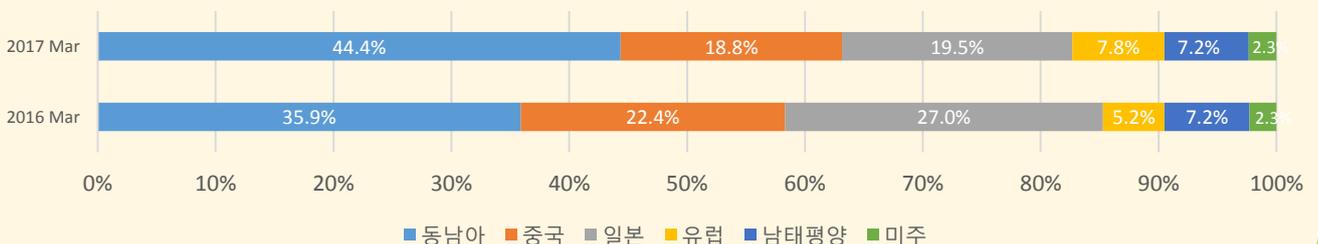
미주 +34.5%, 남태평양 +31.7%, 장거리 합산(유럽 포함) 약 56% YoY 성장. 장거리 성장률 매달 점증.

(장거리 합산 성장률 : 16년 11월 18.6% → 12월 20.3% → 17년 1월 35.4% → 2월 45.6% → 3월 55.5%)

일본 -4.3%, 15년의 높은 기저와 16년 지진 여파 영향권에 있지만 한 자릿수 역성장 하며 회복하는 모습.

3월은 2월보다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며 일본을 제외한 전 지역이 고르게 성장.

### 인원 비중



### 예약률 증감 (PKG)

(단위 : 명, %)

	17년 4월	17년 5월	17년 6월
증감률	18.2%	28.4%	35.1%

\* 2017.03.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

**4월** 예약률 **18%**, THAD 논란 영향으로 중국향 신규 예약 유입 둔화되었지만, 두 자릿수 예약률 지속  
**5월** 예약률 **28%**, 징검다리 연휴로 전년 동월보다 수익성 개선 기대되는 상황에서 볼륨 성장도 양호  
**6월** 예약률 **35%**, 상대적으로 THAD 논란에 영향을 덜 받았으며, 중국향 예약 개선 가능성이 보이는 달  
 전통적 비수기인 2분기는 중국과의 THAD 분쟁 영향까지 받았음에도, 2분기 평균 25% 이상 예약률 증가,  
 6월 출발 중국향 신규예약이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로 2분기 전체적인 볼륨 성장은 개선될 여지가 있음